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전통음식 패스트푸드화에 관한 견해

노승배 · 신애숙* · 길지은*

양산대학 식품가공제과제빵과, 양산대학 호텔조리과*
(2001년 3월 5일 접수)

A Study on the Traditional Fast Food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Sung-Bae Ro, Ae-Sook Shin* and Ji-Oeun Kil
Dept. Food Processing & Baking, Yangsan College
Dept. Hotel Culinary Arts, Yangsan College*
(Received March 5, 2001)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ttitude by college students toward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food into fast food style. Data were collected from a convenient sample of 340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colleges in Busan metropolitan area. Bivariate analyses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made on attitude including evaluation on effects of western fast food taking on eating practice, comparison of willingness to take western-brand fast food with traditional food in fast food style, evaluation of domestic-brand fast food, need and probability of success of operation of fast food restaurant serving only traditional food, list of kinds of traditional food could be in fast food, perceived obstacles to develop traditional food in fast food style and intention to utilize fast food restaurant serving only traditional food if available.

Key Words : fast food style, domestic-brand, traditional food, Busan

I. 서론

고도의 성장과 산업화의 급격한 신장에 따라 사회, 경제적 요인과 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등의 식생활 혁신산업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특히, 86,88년도의 국제운동경기와 각종 국제적 행사의 유치, 국제 규모의 관광사업 등은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기능은 외식소비행동의 증가에 따라 우리의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의식과 행동의 변화, 여성의 직장 진출 효과, 사회참여 증가, 레저지향화의 생활, 식품 및

가공기술의 발달, 현대인의 바쁜 생활 등이 식생활의 외식화 경향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¹⁾.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속에 간편성, 다양성, 경제성, 신속성, 균일품질과 위생서비스, 기호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외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외국브랜드의 패스트푸드 도입에 따라 우리 식생활에 패스트푸드 산업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²⁻⁵⁾.

패스트푸드란 고객이 주문하면 곧 바로 음식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속성에서 기인된 말로 같은 맛, 깨끗한 점포환경,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음식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조직적인 경영기법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본부에

서 식품구매, 음식의 생산방법 등을 표준화한 체인 시스템으로 관리운영 전반의 규격화, 시스템화, 매뉴얼화에 의한 표준화를 실현시키고 있다. 국내의 패스트푸드 사업은 1979년 롯데리아의 개점을 시작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세계 유명 햄버거업체 및 도너츠업체가 상륙하였고 국내보급형 패스트푸드로 한식국수를 가지고 면류 체인점이 진출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프라이드 치킨점 및 피자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에서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단위의 외식이 증가하면서 고객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주고객으로는 청소년층이 많고, 이들의 식습관은 앞으로 우리의 식생활과 전통 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⁷⁻¹⁰⁾, 식품선택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은 영양보다는 기호성 위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 패스트푸드는 영양소의 섭취 불균형 현상이 문제가 되므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갖도록 음식 선택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영양교육을 강조해야 한다¹¹⁾.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활성화는 젊은 세대의 식성을 서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국민건강을 위해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 서구음식의 외식 선호경향은 동맥경화, 심장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기 쉽다¹²⁾. 따라서 국민건강 지향을 위한 외식문화를 창조하는 외식산업의 발전이 바람직하다. 남⁶⁾의 연구에서는 한국형 패스트푸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한국형 패스트푸드의 유형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제 1유형으로 전통적으로 쌀을 주원료로 하는 해장국, 설렁탕, 김밥, 고기덮밥 등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제 2유형으로는 기존의 면류 체인점, 제 3유형으로는 햄버거, 치킨, 피자 등 기존의 서구형 패스트푸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나¹³⁻¹⁴⁾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한국형 전통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의견조사연구는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용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하루 세끼식사 중 한끼는 패스트푸드에 지출할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간편하고 서구화된 패스트푸드만을 지향하기보다는 전통음식을 선호할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화하여 신세대 감각에 어울리게 한다면 우리고유의 식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에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II.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지역 6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점 이용실태에 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10월 4일 2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패스트푸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의 이용견해, 국내브랜드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견해,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견해, 전통음식중 패스트푸드화 할 수 있는 음식, 전통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전통음식 패스트푸드점이 생긴다면 대학생들의 이용여부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부산지역 6개 대학에 각 60부씩의 설문지를 대학생에게 배부한 360부의 설문지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34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¹⁵⁾으로 각 항목의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χ^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자 56.2%, 여자 43.8% 이었고, 연령별로는 20-24세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상태별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73.6%로 나타났고, 월 평균용돈은 16-20만원이 31.8%로 가장 많았고, 11-15만원이 23.5%, 21-25만원이 17.4%, 26-30만원이 10.9%를 차지하였다.

2. 패스트푸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견해

<Table 2>는 패스트푸드가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Variables | | Male | Female | Total* |
|-------------------------------------|---------------------------------|-----------|-----------|-----------|
| Age(yr) | under 19 | 25(7.2) | 34(9.8) | 59(17.8) |
| | 20-24 | 121(35.0) | 110(31.8) | 231(66.8) |
| | 25 over | 45(13.0) | 11(3.2) | 56(16.2) |
| Resident type | private | 132(38.3) | 122(35.3) | 254(73.6) |
| | self-boarding lodgings & others | 27(7.8) | 21(6.1) | 48(13.9) |
| | | 31(9.0) | 12(3.5) | 43(12.5) |
| Monthly spending money (×1,000 won) | under 10 | 15(4.4) | 11(3.2) | 26(7.6) |
| | 11-15 | 39(11.5) | 41(12.0) | 80(23.5) |
| | 16-20 | 54(15.9) | 54(15.9) | 108(31.8) |
| | 21-25 | 40(11.8) | 19(5.6) | 59(17.4) |
| | 26-30 | 25(7.4) | 12(3.5) | 37(10.9) |
| | 31 over | 18(5.3) | 12(3.5) | 30(8.8) |
| total | | 191(56.2) | 149(43.8) | 340(100) |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입맛이 서구화 되는 경향이 있다'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의 과잉섭취'가 24.6%,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맛이 서구화되었다',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었다', '외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짠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순으로 나타난 김²⁾의 울산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입맛이 서구화 된다'는 비율이 44.1%로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은 '지방의 과잉섭취'가 33.8%로 비율이 가장 높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외적 미모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입맛의 서구화'의 비율이 높았고 20세 이상의 연령층이 '지방의 과잉섭취'의 비

율이 높아 연령층이 높을수록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외국브랜드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한 견해

<Table 3>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점 이용견해를 나타낸 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업체가 대부분인 실정인데 이러한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32.9%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가 23.1%, '국내브랜드가 좋다'가 20.3%,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가 10.2%의 순으로 나타나 외국브랜드의 이용자제와 국내브랜드가 좋다는 의견을 합하면 53.6%로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들이 외국브랜드를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조금씩 삼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맛과 질적인 면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별생각이 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던 한³⁾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되도록 삼가야 한다', '생각해 본적 없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가지 말아야 한다'의 순으로 나타난 모⁸⁾의 조사결과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39.9%가 '생각해보지 않았다', 24.8%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17%가 '국내브랜드가 더 좋다'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25.4%가 '생각해보지 않았다', 23.9%가 '국내브랜드가 더 좋다', 21.1%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라고 응답하여 '생각해 보지 않았다'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외국브랜드 패

<Table 2> Eating habits affected by fast food by college students in Busan

N(%)

| Variables | | westernized taste | preferring dining-out | over-fat intake | obesity potential | others | Total | Statistics |
|-----------|----------|-------------------|-----------------------|-----------------|-------------------|----------|------------|-----------------------------------|
| Sex | male | 67(44.1) | 33(21.7) | 24(15.8) | 9(5.9) | 19(12.5) | 152(100.0) | $\chi^2=18.302$ df=4 p<0.01 |
| | female | 39(27.5) | 27(19.0) | 48(33.8) | 15(10.6) | 13(9.2) | 142(100.0) | |
| | total | 106(36.1) | 60(20.4) | 72(24.5) | 24(8.2) | 32(10.9) | 294(100.0) | |
| Age(yr) | under 19 | 20(37.0) | 10(18.5) | 10(18.5) | 9(16.7) | 5(9.3) | 54(100.0) | $\chi^2=12.017$ df=8 N.S.* |
| | 20-24 | 75(36.9) | 40(19.7) | 52(25.6) | 15(7.4) | 21(10.3) | 203(100.0) | |
| | 25 over | 10(27.8) | 10(27.8) | 10(27.8) | 0 | 6(16.7) | 36(100.0) | |
| total** | | 105(35.8) | 60(20.5) | 72(24.6) | 24(8.2) | 32(10.9) | 293(100.0) | |

* N.S.: Not Significant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Table 3> Attitude toward overseas brands of fast food restaurants by college students in Busan

N(%)

| Variables | | unwillingness of use | preferring domestic brand | don't know | forbid to use | good service | good atmosphere | Total | Statistics |
|-----------|----------|----------------------|---------------------------|------------|---------------|--------------|-----------------|------------|-----------------------------------|
| Sex | male | 38(24.8) | 26(17.0) | 61(39.9) | 12(7.8) | 10(6.5) | 6(3.9) | 153(100.0) | $\chi^2=12.142$ df=5 |
| | female | 30(21.1) | 34(23.9) | 36(25.4) | 18(12.7) | 19(13.4) | 5(3.5) | 142(100.0) | |
| total | | 68(23.1) | 60(20.3) | 97(32.9) | 30(10.2) | 29(9.8) | 11(3.7) | 295(100.0) | P<0.05 |
| Age(yr) | under 19 | 20(37.0) | 7(13.0) | 16(29.6) | 7(13.0) | 4(7.4) | 7(3.1) | 228(100.0) | $\chi^2=14.583$ df=10 N.S.* |
| | 20-24 | 38(18.7) | 45(22.2) | 70(34.5) | 20(9.9) | 22(10.8) | 3(8.3) | 36(100.0) | |
| | 25 over | 10(27.8) | 8(22.2) | 9(25.0) | 3(8.3) | 3(8.3) | 1(3.3) | 30(100.0) | |
| total** | | 68(23.2) | 60(20.5) | 95(32.4) | 30(10.2) | 29(9.9) | 11(3.8) | 293(100.0) | |

* N.S.: Not Significant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해 19세 이하의 대학생 중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20-24세 대학생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34.5%로 높았으며 25세 이상의 대학생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가 27.8%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10대에 비해 국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국내브랜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견해

<Table 4>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국내브랜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견해에 대한 결과이다. 로열티 지급이 필요없는 국내브랜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견해는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맛이 떨어진다'가 20.8%, '어쩐지 외국브랜드보다 못하다'가 13.3%, '가격이 비싸다'가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로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여 남학생은 '모르겠다'가 40.1%, '맛이 떨어진다'가 16.7%, '어쩐지 외국 브랜드보다 못

하다', '가격이 비싸다'가 12.0%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맛이 떨어진다'가 26.0%, '모르겠다'가 22.1%이고, 연령별로는 유의적인 차이 없이 '모르겠다'가 33.3%, '맛이 떨어진다'가 20.9%, '어쩐지 외국 브랜드보다 못하다'가 13.4%, 다음으로 '가격이 비싸다', '서비스가 나쁘다', '실내장식이 떨어진다'의 순으로 그 비율이 나타나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국내브랜드 패스트푸드점보다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패스트푸드 도입에 따라 식문화의 서구화 현상이 우리 식생활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견해

<Table 5>에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전망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으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15.5%, '현실성이 없다', '필요성이

<Table 4> Attitude toward domestic brands of fast food restaurants by college students in Busan

N(%)

| Variables | | Inferior to overseas brands in | | | | | | Total | Statistics |
|-----------|----------|--------------------------------|----------|----------|------------|---------|-----------|----------|-----------------------------------|
| | | general | taste | price | decoration | service | unknown | | |
| Sex | male | 23(12.0) | 32(16.7) | 23(12.0) | 8(4.2) | 7(3.6) | 77(40.1) | 22(11.5) | $\chi^2=19.980$ df=6 |
| | female | 23(14.9) | 40(26.0) | 12(7.8) | 8(5.2) | 15(9.7) | 34(22.1) | 22(14.3) | |
| total | | 46(13.3) | 72(20.8) | 35(10.1) | 16(4.6) | 22(6.4) | 111(32.1) | 44(12.7) | P<0.01 |
| Age(yr) | under 19 | 8(13.8) | 7(12.1) | 5(8.6) | 1(1.7) | 3(5.2) | 24(41.4) | 10(17.2) | $\chi^2=12.384$ df=12 N.S.* |
| | 20-24 | 30(13.0) | 52(22.5) | 24(10.4) | 10(4.3) | 13(5.6) | 70(30.3) | 32(13.9) | |
| | 25 over | 8(14.5) | 13(23.6) | 6(10.9) | 4(7.3) | 5(9.1) | 17(30.9) | 2(3.6) | |
| total** | | 46(13.4) | 72(20.9) | 35(10.2) | 15(4.4) | 21(6.1) | 111(33.3) | 44(12.8) | 344(100.0) |

* N.S.: Not Significant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Table 5> Views of traditional food in fast food type by college students in Busan

N(%)

| Variables | | bright future | commercialize in a short time | no needs | no real sense | Total | Statistics |
|--------------------------------------|---------------------------------|---------------|-------------------------------|----------|---------------|------------|------------------------------------|
| Resident type | private | 169(67.6) | 32(12.8) | 15(6.0) | 34(13.6) | 250(100.0) | $\chi^2=20.263$ df=6 P< 0.01 |
| | self-boarding lodgings & others | 24(56.0) | 13(27.1) | 5(10.4) | 6(12.5) | 48(100.0) | |
| | total | 19(44.2) | 8(18.6) | 9(20.9) | 7(16.3) | 43(100.0) | |
| total | | 212(62.2) | 53(15.5) | 29(8.5) | 47(13.8) | 341(100.0) | |
| Monthly spending money (× 1,000 won) | under 10 | 20(76.9) | 2(7.7) | 1(3.8) | 3(11.5) | 26(100.0) | $\chi^2=20.200$ df=15 N.S.* |
| | 11-15 | 44(57.1) | 12(15.6) | 10(13.0) | 11(14.3) | 77(100.0) | |
| | 16-20 | 61(57.0) | 23(21.5) | 7(6.5) | 16(15.0) | 107(100.0) | |
| | 21-25 | 41(69.5) | 10(16.9) | 3(5.1) | 5(8.5) | 59(100.0) | |
| | 26-30 | 25(67.6) | 3(8.1) | 6(16.2) | 3(8.1) | 37(100.0) | |
| 30 over | 17(56.7) | 3(10.0) | 2(6.7) | 8(26.7) | 30(100.0) | | |
| total** | | 208(61.9) | 53(15.8) | 29(8.6) | 46(13.7) | 336(100.0) | |

* N.S.: Not Significant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²⁾의 연구결과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50/0%), '바람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32.4%),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1.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⁸⁾등의 연구결과에서 '바람직하다' (43.6%), '보통이다' (38.9%) '부정적이다' (17.5%)의 순으로 나타나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본 조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거상태별로는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여, 자기집(67.6%)에서 거주하거나 차취(56%)를 하는 대학생들은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하숙 및 친척 등의 기타 거주 형태의 대학생

들은 '필요성이 없다'의 비율이 20.9%, '현실성 없다'의 비율도 16.3%나 되어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 평균 용돈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용돈이 적을수록 전망이 있거나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용돈이 많을수록 필요성이 없거나 현실성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 전통음식 중 패스트푸드화 할 수 있는 음식

<Table 6>에서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전통음식 중 패스트푸드화 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

<Table 6> Items of traditional food could be in type by college students in Busan

N(%)

| Variables | | bulgoki | zabechae | kuzelpan | kalbi | bindaedduk | rice cake & korean snaks | beverage & others | Total | Statistics |
|---------------------------------------|---------------------------------|----------|----------|----------|----------|------------|--------------------------|-------------------|------------|-------------------------------------|
| Resident type | private | 47(18.8) | 20(8.0) | 8(3.2) | 15(6.0) | 40(16.0) | 77(30.8) | 43(17.2) | 250(100.0) | $\chi^2=23.092$ df=12 P< 0.05 |
| | self-boarding lodgings & others | 9(18.8) | 8(16.7) | 3(6.3) | 5(10.4) | 7(14.6) | 10(20.8) | 6(12.5) | 48(100.0) | |
| | total | 16(37.2) | 2(4.7) | 2(4.7) | 4(9.3) | 3(7.0) | 5(11.6) | 11(25.6) | 43(100.0) | |
| total | | 72(21.1) | 30(8.8) | 13(3.8) | 24(7.0) | 50(14.7) | 92(27.0) | 60(17.6) | 341(100.0) | |
| Monthly spending money (× 10,000 won) | under 10 | 9(34.6) | 1(3.8) | 1(3.8) | 1(3.8) | 6(23.1) | 5(19.2) | 3(11.5) | 26(100.0) | $\chi^2=40.657$ df=30 N.S. |
| | 11-15 | 20(26.0) | 3(3.9) | 0 | 7(9.1) | 10(13.0) | 25(32.5) | 12(15.6) | 77(100.0) | |
| | 16-20 | 17(15.9) | 14(13.1) | 9(8.4) | 7(6.5) | 10(9.3) | 28(26.2) | 22(20.6) | 107(100.0) | |
| | 21-25 | 9(15.3) | 7(11.9) | 2(3.4) | 5(8.5) | 9(15.3) | 14(23.7) | 13(22.0) | 59(100.0) | |
| | 26-30 | 12(32.4) | 2(5.4) | 1(2.7) | 1(2.7) | 10(27.0) | 7(18.9) | 4(10.8) | 37(100.0) | |
| 30 Over | 4(13.3) | 2(6.7) | 0 | 3(10.0) | 5(16.7) | 10(33.3) | 6(20.0) | 30(100.0) | | |
| total** | | 71(21.1) | 29(8.6) | 13(3.9) | 24(7.1) | 50(14.9) | 89(26.5) | 60(17.9) | 336(100.0) | |

* N.S.: Not Significant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것이다. '떡, 한과류'가 27.0%로 가장 많았고, '불고기' (21.2%), '음료' (17.6%), '빈대떡' (14.7%), '잡채' (8.8%), '갈비찜' (7%), '구절판' (3.8%)의 비율이었다. 주거상태별로는 자기집 (30.8%), 자취 (20.8%), 하숙 (11.6%)하는 학생 모두 '떡과 한과류를 패스트푸드화 할 수 있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월 평균 용돈별로는 유의적인 차이없이 용돈의 액수와 별 차이없이 '떡과 한과류(26.5%)를 패스트푸드화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김²⁾의 연구결과에서는 전통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한다면 어떤 품목이 적당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식혜와 수정과 같은 전통음료(108명), 떡 (100명), 전류(68명), 과자류(52명), 국, 탕(24명), 밥(20명) 순으로 본 조사와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7.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있어서의 문제점

<Table 7>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전통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하는데 있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결과이다. 전통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하는데 있어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26.2%, '정성부족으로 인해 맛 감소'가 2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재료조달이나 음식가격, 인건비 등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성별 ($p<0.01$), 연령별 ($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음식의

기계화와 자동화' 문제가 남학생에 비해 높아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4세이하의 대학생들은 '음식의 기계화, 자동화', '사람들의 인식', '정성부족으로 인한 맛감소'의 순이었으나 25세이상의 대학생들은 '사람들의 인식', '정성부족으로 인한 맛감소',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큰 걸림돌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상태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자기집에 거주하거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은 '사람들의 인식'이, 자취생은 '음식의 기계화, 자동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8. 전통음식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

<Table 8>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전통음식 패스트푸드점이 생기면 그 이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전통음식 패스트푸드점이 있다면 '가끔 이용할 것이다'가 56.5%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많이 이용할 것이다' 19.8%, '별로 이용치 않을 것이다'가 12.3%로 나타났으며, '전혀 이용치 않을 것이다'도 11.4%나 되었다. 이는 연령별 ($p<0.05$), 주거상태별 ($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많이 이용할 것이다'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그 비율이 높았고, '전혀 이용치 않을 것이다'의 비율도 남학생이 높아 양극화현상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25세이상의 대학생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의 비율이 훨씬 높아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음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Table 7> Perceived obstacles by college students in Busan to produce traditional food in fast food types

N(%)

| Variables | | public under-standing | mechanization & atomation | materials supplying | food price | labor cost | bad taste caused by insincerity | others | Total | Statistics |
|---------------|---------------------------------|-----------------------|---------------------------|---------------------|------------|------------|---------------------------------|------------|------------|------------------------------------|
| Sex | male | 66(34.4) | 36(18.8) | 8(4.2) | 19(9.9) | 6(3.1) | 40(20.8) | 17(8.9) | 192(100.0) | $\chi^2=18.401$ df=6 p<0.01 |
| | female | 37(23.9) | 55(35.5) | 2(1.3) | 7(4.5) | 6(3.9) | 35(22.6) | 13(8.4) | 155(100.0) | |
| | total | 103(29.7) | 91(26.2) | 10(2.9) | 26(7.5) | 12(3.5) | 75(21.6) | 30(8.6) | 347(100.0) | |
| Age(yr) | under19 | 15(25.4) | 17(28.8) | 3(5.1) | 3(5.1) | 1(1.7) | 11(18.6) | 9(15.3) | 59(100.0) | $\chi^2=23.732$ df=12 P<0.05 |
| | 20-24 | 67(29.0) | 69(29.9) | 5(2.2) | 18(7.8) | 6(2.6) | 52(22.5) | 14(6.1) | 231(100.0) | |
| | 25over | 21(38.2) | 5(9.1) | 1(1.8) | 5(9.1) | 5(9.1) | 11(20.0) | 7(12.7) | 55(100.0) | |
| total | 103(29.9) | 91(26.4) | 9(2.6) | 26(7.5) | 12(3.5) | 74(21.4) | 30(8.7) | 345(100.0) | | |
| Resident type | private | 79(31.2) | 60(23.7) | 6(2.4) | 17(6.7) | 8(3.2) | 60(23.7) | 23(9.1) | 253(100.0) | $\chi^2=35.204$ df=30 N.S.* |
| | self-boarding lodgings & others | 12(25.0) | 17(35.4) | 3(6.3) | 4(8.3) | 1(2.1) | 10(20.8) | 1(2.1) | 48(100.0) | |
| | total** | 101(29.4) | 91(26.5) | 10(2.9) | 26(7.6) | 12(3.5) | 75(21.8) | 29(8.4) | 344(100.0) | |

* N.S.: Not Significant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Table 8> Willingness to visit if available by college students in Busan

N(%)

| Variables | | frequently visiting | often visiting | occasionally visiting | never visiting | Total | Statistics |
|--------------------------------------|---------------------------------|---------------------|----------------|-----------------------|----------------|------------|-----------------------------------|
| Sex | male | 40(22.2) | 96(53.3) | 22(12.2) | 22(12.2) | 180(100.0) | $\chi^2=2.046$ df=3 N.S. |
| | female | 26(17.0) | 92(60.1) | 19(12.4) | 16(10.5) | 153(100.0) | |
| | total | 66(19.8) | 188(56.5) | 41(12.3) | 38(11.4) | 333(100.0) | |
| Age(yr) | under19 | 15(25.9) | 33(56.9) | 6(10.3) | 4(6.9) | 58(100.0) | $\chi^2=14.456$ df=6 p<0.05 |
| | 20-24 | 36(16.0) | 136(60.4) | 29(12.9) | 24(10.7) | 225(100.0) | |
| | 25over | 15(30.6) | 18(36.7) | 6(12.2) | 10(0.4) | 49(100.0) | |
| | total | 66(19.9) | 187(56.3) | 41(12.3) | 38(11.4) | 332(100.0) | |
| Resident type | private | 44(18.0) | 148(60.4) | 26(10.6) | 27(11.0) | 245(100.0) | $\chi^2=13.557$ df=6 p<0.05 |
| | self-boarding lodgings & others | 15(31.9) | 22(46.8) | 5(10.6) | 5(10.6) | 47(100.0) | |
| | | 7(18.4) | 16(42.1) | 10(26.3) | 5(13.2) | 38(100.0) | |
| | total | 66(20.0) | 186(56.4) | 41(12.4) | 37(11.2) | 330(100.0) | |
| Monthly spending money (× 10,000won) | under10 | 7(26.9) | 16(61.5) | 2(7.7) | 1(3.8) | 26(100.0) | $\chi^2=21.346$ df=15 N.S. |
| | 11-15 | 11(14.7) | 44(58.7) | 14(18.7) | 6(8.0) | 75(100.0) | |
| | 16-20 | 15(14.4) | 64(61.5) | 15(14.4) | 10(9.6) | 104(100.0) | |
| | 21-25 | 12(21.1) | 33(57.9) | 5(8.8) | 7(12.3) | 57(100.0) | |
| | 26-30 | 10(29.4) | 16(47.1) | 1(2.9) | 7(20.6) | 34(100.0) | |
| | 30 over | 9(31.0) | 12(41.4) | 3(10.3) | 5(17.2) | 29(100.0) | |
| total** | 64(19.7) | 185(56.9) | 40(12.3) | 36(11.1) | 325(100.0) | | |

* N.S.: Not Significant

** Total is varied for item by absence.

혀 이용치 않을 것이다'의 비율이 24세 이하에서 25세 이상의 연령층보다 확연히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 음식보다 외국음식의 패스트푸드를 더욱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상태별로 살펴보면, '많이 이용할 것이다'와 '가끔 이용할 것이다'의 비율이 하숙생에 비해 자기집에 거주하거나 차취하는 대학생이 그 비율이 훨씬 높아 <Table 5>에서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가 전망이 있다고 보는 것도 하숙생에 비해 자기집, 자취생이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여 자기집 거주생이나 자취생보다 하숙생이 외국음식 패스트푸드 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월 평균 용돈별로는 용돈이 30만원 이상의 대학생은 '많이 이용할 것이다'(31.0%)의 비율도 높고,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17.2%)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용돈이 적을수록 '전혀 이용치 않을 것이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IV. 요약

부산지역 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이 56.2%, 여학생이 43.8%, 20-24세가 66.8%를 차지하였고, 자기집에 거주하는 학생이 73.6%이었으며, 평균용돈은 16-20만원이 3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패스트푸드가 식품관에 미치는 영향은 '입맛이 서구화 되었다', '지방의 과잉섭취가 되었다', '외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비만가능성이 커졌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입맛의 서구화, 여학생은 지방의 과잉섭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에 대한 견해는 '생각해보지 않았다'(32.9%),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23.1%)로 나타났으며 전통음식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에 대해서는 '가끔 이용할 것이다'(56.5%), '많이 이용할 것이다'(19.8%)로 나타나 빠른 시일내에 한국형 전통음식 패스트푸드업체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국내브랜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견해로는 '모르겠다'(32.1%), '맛이 떨어진다'(20.8%), '어쩐지 외국 브랜드보다 못하다'(13.3%)의 순이었고, 성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맛의 차이는 여학생이, 가격의 차이는 남학생이 높은 비율로 꼽았다.

5.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견해로는 '전망이 있다'가 62.2%,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15.5%로 나타났으며, 전통음식 중 패스트푸드화 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떡, 한과류(27%), 불고기, 음료, 빈대떡, 잡채, 갈비찜, 구절판의 순이었다.
 6. 전통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사람들의 인식(29.7%), 음식의 기계화와 자동화(26.2%), 정성부족으로 인한 맛의 감소(21.6%)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p<0.01$), 연령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7. 전통음식 패스트푸드점이 생기면 이용도에 관한 견해는 '가끔 이용할 것이다'가 56.5%, '많이 이용할 것이다'가 19.8%로 나타났고, 연령별($p<0.05$), 주거상태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치 않겠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주거상태별로는 '전혀 이용치 않을 것이다'의 비율이 하숙생이 높게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유행에 민감하고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며 패스트푸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하였을 때의 견해를 알아보고 그 전망을 살피기 위한 연구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신세대라 하더라도 많은 비율의 대학생들이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전망을 밝게 보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와 상품화에 대한 인식이 고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그 추이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Soo-Mi Mo. The Development of Eating-Out Culture in Korea,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9(2): 181, 1994.
- 2) Hye-Kyung Kim.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1(1): 131, 1996.
- 3) Eun-Soon Lyu, Tong-Kyung Kwak. A Study on the Model Establishment for Restructure of Eating Supply Management in Fast Food Chain,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5(4): 455, 1990.
- 4) Chang-Gun An. Food Engineering, 82: 17-22, 1985.
- 5) Choong-Woo Nam. The Rearing Plan for Fast Food Chains of Korean Styl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Resources, 9, 1993.
- 6) Tong-Kyung Kwak. The Development course and Management on Actual Condition to provide Meal of Fast Food Chain,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9(2): 189, 1994.
- 7) Soo-Mi Mo, Chang-Im Kim, Sim-Yeol Lee. A Study on Dining out Behaviours of Fast Foods Focused on Youido Apartment Compound in Seoul,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3): 295, 1986.
- 8) Soo-Mi Mo, Mi-Jeong Jeon, Soo-Kyoung Bae. A Secondary Survey of Fast Food Dining out Behaviours-Focus on Youido Apartment Compound in Seoul,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4(1): 83, 1989.
- 9) Mi-Jeong Jeon, Bok-Hee Lee, Kyung-Sin Lee, Soo-Mi Mo. A Survey of Fast Food Dining out Behaviours,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2): 15, 1990.
- 10) Mo-Ra Park, Soon-Hee Kim, Sung-Uhn Wi. The Consumption Patterns of Fast food in Small Cities,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4(2): 139, 1999.
- 11) Ki-Wan Lee, Young-Mee Lee. Nutrition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Kyunggi-do Area,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0(2): 125, 1995.
- 12) Cho-Young Kim. An Investigation for Utilization and Nutritional Balance of Fast Food, Yon-Sei Univ. Ms, 1989.
- 13) Myung-Joo Han. A Survey on Out-eating Behavior of Fast Food in Seoul, J.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7(2): 91, 1992.
- 14) Kyung-Hee Sim, Seong-Ai Kim. Utilization State of Fast Foods among Korean Youth in Big Cities,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26(6): 804, 1993.
- 15) Su-Il Chae, Bum-Chong Kim, Sung-Gun Lee.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SPSS/PC+. Hakhun Co. Seoul, 1993.